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교인’

주차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진다

양보와 협조만이 해결할 수 있어

찬양예배 후 귀가하는 봉사자, 제2교육관 지하주차장 적극 활용을

오늘날 현대 교회의 부흥은 주차장 확보에 달려 있다는 말을 흔히 듣는다. 개인용 승용차가 점차적으로 보편화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실감나게 느끼게 된다. 교회는 이 일의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주차문제는 계속 문제로 남아 있다.

또한 비좁은 주차공간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심심찮은 시비가 오가기도 할 뿐더러 심지어는 주차를 못하고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교회학교 집회 시간 단축

이에 교회에서는 95년부터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요원을 대폭 강화하여 장로 및 남녀 교역자를 직접 차량관리 요원으로 세우고 1부 교회학교 중 오전 9시에 시작되는 교회학교가 끝나는 시간이 늦어지므로 자녀들을 태우고 귀가하려는 학부모들이 차량을 빼지 못하고 주차공간에서 기다리므로 3부예배(오전 11시)를 위해 오는 차량들이 주차를 못하고 교회 주위를 돌게 됨에 따라 오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전 9시에 시작하던 1부 교회학교를 10분 앞당겨 오전 8시 50분에 시작하고 예배와 분반공부, 학생지도를 오전 10시까지 끝내어 2부예배(오전 9시)를 마치고 돌아가는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기다리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또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주차장 문제는 비단 우리 교회

의 문제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일 어려운 것은 차량을 소유하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양식문제가 더 심각하기에 서울시에서도 시장이 직접 광고 방송에 나서서 질서지키기와 양보하기, 승용차 안타고 다니기 등을 홍보할 지경에 이르렀다.

사실 우리 교회의 주차 공간은 아마도 서울시내에 있는 교회 중에서는 제일 좋은 형편에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문제는 갈수록 심각하다.

제2교육관 주차장 활용토록

그러나 지난 6월부터는 제2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있어 다소 숨통이 트이긴 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서 많이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지하주차장은 1,2,3,4층으로 모두 300대를 주차시킬 수 있다. 차량관리부에서는 종일 주차하는 교우들은 제2교육관 주차장에 세워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우리 교회의 주차 공간에 일시에 세울 수 있는 차량은 1200여대, 그러나 2부, 3부예배시에는 1200대를 훨씬 웃도는 차량이 몰려든다. 따라서 이때는 차량관리요원들은 일종의 전쟁과 같은 심각한 시간이다.

주차요원의 인도 받아야

현재 차량관리요원으로 매 주일 나와서 봉사하는 인원은 77명, 1부에서부터 4부까지 주차전쟁을 치르고 나면 온몸에 힘이 빠진다. 더욱 힘든 것은 주차관리요원들의 인도를 받지 않고 제멋대

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하다.

차량관리부에서는 주차질서를 위해 주차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차량을 가지고 오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주차지침을 지키도록 하자. 이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운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타나야 할 것이다.

주차지침

1. 대중교통 이용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2. 1부, 4부예배
주일 1부와 4부예배시에는 본당 앞에 주차를 삼가하여 주십시오.
3. 지체없이 이동
주일 2부와 3부예배시에 본당 앞과 교육관 및 선교관 앞뒤에 주차하신 성도들은 예배 후 빨리 이동하여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 주십시오.
4. 종일 주차
아침에 와서 저녁 찬양예배 후 귀가하는 직분자는 반드시 봉사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5. 출입구
주차장 출입구 주변에는 어떠한 일

이 있더라도 주차를 삼가해 주십시오.

6. 통로에 주차

통로에 주차하는 성도들은 ① 사이드브레이크를 풀고, ② 기어는 중립에, ③ 핸들은 똑바로 세워 주십시오.

7. 장시간 주차시

통로에 장시간 주차시에는 수시로 확인하여 주차지역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8. 방향지시등

주차장 출입시에는 방향지시등을 켜서 안내자들이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오.

9. 주차선

차량을 주차선 안에 정확하게 세워 주십시오.

10. 배기가스

배기가스가 화단이나 건물벽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11. 안내에 적극 협력

주차의 명랑한 분위기를 위하여 웃음으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 주시고, 안내자의 안내에 적극 협력하여 주십시오.

12. 장로, 안수집사

장로, 안수집사는 장안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96년도 권사회수련회가 오는 9월 9일(월), 10일(화)에 갈릴리움에서 열린다. 금년도 수련회의 주제는 '주의 뜻을 이해하라' (엡 5:17)로 9일(월)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여 10일(화) 오후 3시 30분까지, 교회에서 1박하며 진행된다. 강사는 후암교회 당회장인 손상률 목사로 첫째날 주제 강의와 저녁 집회, 둘째날 강의(2), 강의(3) 등의 시간에 말씀을 전하게 된다. 수련회 기간 중 첫째날은 성경암송대회, 둘째날은 찬송가경연대회도 실시하

96년도 권사회수련회

주의 뜻을 이해하라

강사에 손상률 목사

고 레크리에이션, 개인 기도, 찬양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숙소는 1, 4지회는 영아부실(선교관 102호), 2지회는 새가정부실(교육관 202호), 3지회는 사랑부실(교육관 107호)이다. 권사들은 모두 참석하여 말씀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주제: 주의 뜻을 이해하라(엡 5:17)

강사: 손상률 목사(후암교회 당회장)

일시: 9월 9일 오전 10시~10일 오후 3시 30분

장소: 갈릴리움

96 장로수련회

9월 9일~11일, 2박 3일간

사무장으로 전원이 오는 9월 9일(월)~11일(수)까지 2박 3일간 여산 육군하사관학교 유격훈련장에서 장로수련회를 갖는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요 17:17)란 주제 아래 열리는 금번 수련회는 당회장 김창인 목사, 김준규 목사(청주중앙교회 당회장, 총회 부총회장), 조용표 목사(육군 하사관학교 담임 군목)가 강사로 예배, 특강, 친교, 심신단련훈련, 조별토의, 집중기도회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 97학년도 총신대학 신학과에 입학할 지원하는 학생(수세1년 이상)과 신학대학원 입시 지원자(수세 5년 이상)는 목사 후보생교시 청원서를

· 97년도 강도사고시에 응하실 분은 강도사고시 추천 청원서와 현재 총신신대원 재학생들은 신학계속추천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기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회 사무국 총무과(김차철 집사, ☎ 552-8200)로 9월 18일(수) 오후 5시까지 시간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강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징계후의 감사의 노래

(시편 30:1-12)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날마다 강하여졌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궁궐을 잘 지었습니다. 나라의 안과 밖이 부흥 발전됩니다. 이러한 동안에 다윗왕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이것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죄의 값입니다. 마침내 다윗왕은 죄값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죄인 징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왕에게 선지자 갓이 나타나서 "죄값으로 하나님이 벌을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7년 동안의 흉년, 3개월 동안의 전쟁, 사흘 동안의 전염병 중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다윗왕은 "내 잘못으로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 앞에 매 맞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직접 맞겠습니다. 전염병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무서운 전염병의 칼을 뽑아 치시는데 7만명이 죽었습니다. 살아 남은 사람이 수없이 많은 때에 다윗왕이 보니까 칼을 뽑아든 천사가 공중에 있습니다. 보통사람 같으면 도망가겠는데 다윗왕은 그 천사 앞으로 나아가 죄의 책임을 몽땅 자신이 짊어지고 핑계없이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이때에 갓 선지자가 다윗왕에게 와서 "빨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대왕의 제사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왕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그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더니 그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았습니다. 전염병이 끝났습니다. 전염병이 끝난 때에 다윗왕이 지은 시가 시편 30편입니다.

1. 다윗의 감사의 이유

(1) 원수의 궤방에서 놓여남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오늘 날까지 잘 되었는데 이제 내가 죄값으로 망해버리면 나의 원수들이 얼마나 조롱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비록 죄를 범했지만 이제 용서해 주셔서 원수들이 조롱할 수 없도록 해주신 것이 고마워서 나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2) 징계에서 놓여남을 감사합니다

다윗왕은 직접 병은 안들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으로서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백성들이 병들어 죽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병이 들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내 하나님" 하고 찾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하나님으로만 믿는 사람이 아

니고 내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다윗왕은 하나님에게 매를 두들겨 맞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고쳐주시고 내 고민을 벗어나 주시고 내 백성의 전염병을 고쳐주소서" 하나님 살려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질병을 물리치셨습니다.

(3) 영혼이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육신만 살게 해 주신 게 아니고 내 영혼도 죄 용서함 받았으니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습시다' 내 영혼도 살고 내 육신도 무덤에 갈 시간 당장 왔었는데 좀 있다 가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찬송을 기쁨으로 부릅니다.

2. 환난 만난 성도들을 권면

다윗왕은 환난을 만났을 때에 기도와 응답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것이 체험이 되어서 환난을 만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잠깐 후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했어도 겸손하게, 철저히 회개만 하면 아침이 빨리 오고, 아무리 죄가 적어도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외식하고 우물쭈물하면 아침이 안옵니다. 죄가 크고 작은 것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죄를 회개하느냐 안하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 찾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삽니다. 빛 가운데서 무서움 없이, 불안한 것 없이, 염려 없이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비쳐 오면 하는 일이 모두 성령님의 열매 맺는 성공입니다.

3. 범죄와 회개

(1) 교만했습니다

다윗왕이 가는 데마다 승리하고 인근에 있는 각 나라에서 선물을 보내오고 백성들이 열심으로 일합니다. 이렇게 복을 받아 너무나 잘 살게 될 때에 다윗의 마음에는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를 맞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교만함을 깨달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 가리우시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산은 세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세력이 튼튼했는데 내가 지체로워 형통하다고 했으니 다윗왕에게 감감한 밤, 절망의 밤, 근심의 밤이 왔습니다.

(2) 살았을 때 사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간에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매어 달리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내가 범한 죄값 핑계해서 사람 앞에는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매를 맞아야 됩니다. 죄를 안 범해야 됩니다. 또 죄를 범했으면 빨리 회개해야 밤이 낮처럼 하나님의 얼굴, 영광의 빛이 속히 비쳐 옵니다.



다윗은 목동 때부터 거문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밤낮 찬송하기를 좋아하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하기를 좋아하던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키니 찬송을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는 별수없이 무덤으로 내려가게 됐으니 전도할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나만이 찬송을 못 부르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나만이 전도를 못하다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타락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살았을 때 용서하시어 다시 전도하게 하옵소서.'

(3) 금홍을 베푸시어 돕는 자가 되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일시만 찬송하는 자가 되지 않고 앞으로는 영원히 찬송하고 싶습니다' 참 귀한 말입니다. 약한 사람이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저앉고 못난 인간이 너무 잘돼도 교만해서 탈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찬송부르고 전도했다는 것도 임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죽을 때까지 찬송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교만해졌다가, 우상을 섬기며 범죄를 하고, 망했다가 망한 자리에서 회개하고, 회개하니 다시 잘됐습니다. 이렇게 일곱 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되겠고 또 우리 개인의 생활이 이 모양이 되면 안되겠습니다. 한 번 은혜 받으면 항상 조심해서 죽을 때까지 찬송을 계속 불러야 하겠습니다. 잘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못되어도 낙심하지 않고 찬송을 계속 불러야 하겠습니다.

4.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찬송

(1) 기쁨의 옷을 입하셨습니다

범죄하고 백성이 한꺼번에 7만 명이 죽을 적에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하나님을 보면 죄송하고 죄없이 매맞아 죽는 백성을 보면 미안하기 그지없어

왕의 옷을 못입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베옷'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뜻으로 입는 옷입니다. 다윗왕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2) 감사가 영원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죄를 용서 받으니 감사하고, 죄를 용서받으면서 문제가 해결되니 감사하고, 문제가 해결되면서 영혼에 기쁨이 오니 감사하고, 앞으로는 교만죄를 범하지 않을 만큼 정신도 차리게 됐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비록 잘못했어도 회개하고 성령님의 은혜 받으면 범죄하기 전보다도 더 잘되는 수도 있습니다. 회개를 똑바로 하고 기도하면 이전의 것 해결될 뿐만 아니라 새 복을 몇배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잘된 다윗왕이 교만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감감한 밤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낙심하고 주저앉았다면 아주 망할 것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간에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매어 달리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내가 범한 죄값 핑계해서 사람 앞에는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매를 맞아야 됩니다. 죄를 안 범해야 됩니다. 또 죄를 범했으면 빨리 회개해야 밤이 낮처럼 하나님의 얼굴, 영광의 빛이 속히 비쳐 옵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쳐 오면 삽니다. 자라납니다. 발전합니다. 꽃이 피고 열매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기도 생활 바로하여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특별논단 ■

미전도종족 선교 활성화를 위한 총체적 접근

미전도종족(Unreached People)의 개념

박 준 원

(12-1교구, 총회 선교국)

종래의 세계선교의 흐름을 완전히 전환시킨 미전도종족 선교전략은 오늘날 한국교회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지상명령이 교회에 주어졌던 2000년 동안 줄곧 교회들은 선교사명을 완수시키기 위하여 길고도 험난한 난관들을 헤쳐왔다. 이제 주님의 재림을 더욱 가까이 느끼면서 세계복음화 완성을 위한 전 세계적인 연합전선 구축을 다지고 있는 세계선교의 거대한 열풍 속에서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찾아서 함께 미완성 과업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자각해야 할 때이다.

미전도종족이 무엇인가 하는 개념 정립을 위하여 역사적으로 많은 서구 선교학자들의 논의가 거듭되어 왔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미전도종족의 정확한 현황 파악, 효과적인 접근 전략 개발, 전략 성취에 필요한 자원 개발, 그 밖의 과업 성취를 위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연구 작업들이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1. 종속(종족) 개념에 대하여

1) 성경에 나타난 종속 개념

창세기 8장을 보면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멸망되고, 노아의 가족으로 존속케 되는 기록이 나온다. 창세기 10장 5, 20, 31절에는 노아의 세 아들에 의해 전 인류가 각 종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로 분포되어 나가는 기록이 나온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케 되고, 비로소 단일 민족이었던 인간들이 여러 종속들로 흩어지게 된다 (한글성경의 종속을 영어성경은 peoples와 nations로 사용).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축복하시는 기록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며 그를 인하여 땅의 모든 종속이 복을 받을 것임을 약속하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류를 대하실 때 인종적인 구분을 하셨으며,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도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하나의 종속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음을 볼 수 있다.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한 선포와 함께, 막태복을 28장 19절을 보면 부활의 주님께서 "가서 모든 종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종속에 대한 분명한 언급과 선교 지상명령을 볼 수 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19절과 7장 9절에서도 마지막 날 주의 보좌에 모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한 부분에서도 각 종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설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정치 지리적인 의미의 국가에 대한 언급보다는 종속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종속 개념은 창조자이시고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며, 구속의 축복을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종속 개념의 출발

선교학계에서 종속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30년대 초, 학생 자원자 선교운동 출신의 두 젊은이 카메룬 타운젠트와 도널드 맥가브란에 의해서였다. 카메룬 타운젠트는 과테말라 선교사로 가서, 과테말라 교회들과 협력해서 복음전도 사역을 하던 중, 과테말라인들 가운데 스페인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함께 동역하는 스페인어를 아는 선교사들도 이 언어를 모르는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상황에서 결국 언어가 선교의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것은 타운젠트가 1935년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단체를 설립케 되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서 선교를 해야 한다는 그의 선교적 공헌은 각 종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

한편 1933년 피켓 선교사가 《인도의 기독교 대중 운동》이란 책을 출간하였을 때의 반응은 대단했다. 중앙 인도의 기독교회의는 맥가브란과 피켓과 상 선교사를 초청하여 이 책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 보고토록 하였다. 맥가브란은 연구를 통해 인도에 존재하는 사회적 장애를 발견하기 시작했고, 계속적인 연구 끝에 인도 사회계층의 수직적 분리가 종속이라는 개념으로 분리될 수 있는 중요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게 되었다. 이후 맥가브란은 자신의 고전 《하나님의 다리》(1955)에서 '동족단위의 원리(homogeneous unit principle)'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일단 복음이 한 그룹(Group) 안에 침투하게 되면 그 그룹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고유 문화의 동질성을 상실하지 않고 변화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3) 미전도종족은 숨겨진 종족

1974년 스위스 로잔대회에서 랄프 윈터(Ralph D. Winter)는 <도표로 본 남은 과제>란 논문을 통해서 종속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종속무지(People Blindness)'에 대하여 역설했다. 즉 많은 사람들이 한 국가 안에 있는 다양한 종속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선교적 현실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러한 경향에 한 국가 내의 다양한 종속들을 복음화하기 위한 우리의 선교 전략을 무대하게 만들고 있으며, 우리가 이 무지에서 헤어나오기 전에는 교회와 국가의 단결성이라는 정당한 목표는 단일성이라는 잘못된 목표와 혼돈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로써 선교계에서는 개인을 단순히 정치적 집단인 국가 구성원으로서가 아닌 혈연, 문화, 언어 등의 비정치적 요소로 구분되는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보고, 이런 관점에서 선교적인 접근을 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1977년 로잔 산하의 전략회의에서 윈터 박사는 '숨겨진 종속(Hidden People)'이란 개념을 소개하면서 1차적인 유사성인 언어, 문화, 사회적 동질성

으로 인해 E-1 복음전파방식(같은 문화권 내에서 언어, 문화, 사회적 장벽을 겪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전파)으로는 선교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숨겨진 종속'이라 했다.

4) 미전도종족은 토착교회가 없는 그룹

1980년 에딘버러에서의 개척 선교를 위한 세계협의회에서는 '2000년까지 모든 종속에게 교회를'이라는 구호를 사용하였다. 이 대회에서 윈터 박사는 '숨겨진 종속'들을 도시나 농촌에 있는 문화 언어적 하부 그룹 중 아직 같은 종속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곳이라고 정의했다. 결국 다음해 열린 전략위원회에서는 교회의 존재여부가 미전도종족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확인되었다. 이 대회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교회의 존재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한 것으로서, 즉 종속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해나 수용의 장애를 겪지 않고 교회개척 운동이 전개될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의 그룹으로 미전도종족은 자신의 그룹을 복음화할 수 있는 토착된 교회가 없는 그룹으로 교회의 존재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했다. 이 대회를 통해서 로잔대회에서 사용된 종속개념과 에딘버러대회에서 사용된 숨겨진 종속의 개념이 통합되었다.

2. 미전도종족의 개념 정립과 그 수

1982년 시카고에서의 미전도종족 회의에는 종족과 미전도종족집단에 대한 정의가 내려졌다. 즉 종족에 대해서는 "언어, 종교, 인종, 주거, 직업, 계급이나 계층, 처지 등이나, 혹은 이것들이 결합된 것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그들 스스로가 상호 간에 공동의 유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개인들의 상당히 큰 집단으로 보았고, 미전도종족 집단은 자신의 종족 집단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생적인 공동체가 없는 종족집단"으로 보았다. 그 후 이 합의된 개념을 가지고 미전도종족의 숫자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비교하면서 절충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1989년 로잔 마닐라대회 이후 선교지도자들에 의해 확인된 지구상의 미전도종족의 수는 약 2,000개 종족이다. 그러나 미전도종족의 숫자를 포함한 현황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3. 미전도종족 현황과 특징

1) 전세계 미전도종족 수

1991년 랄프 윈터의 미국 세계 선교 센터(USCWM)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12,000 마전도종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곧 모슬렘 4,000개, 부족종교 3,000개, 힌두교 2,000개, 중국 1,000개, 불교 1,000개, 기타 1,000개 종족 등이다.

2) '10/40 창'에 위치

최근 선교전략가들은 미전도종족들이 소위 '10/40 창(The 10/40 Window)'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10/40 창'이란 서아프리카로부터 중동을 지나 아시아까지 뻗어 있는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다소 임의의 띠 모양의 지역이다. 10/40 창 국가들은 그 국토의 대부분이 띠 지역 내에 있는 국가를 말한다.

이 지역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복음에 저항적인 커다란 세력을 포함하고 있다.

교회권, 힌두교권, 불교권의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미복음화된 국가들이 이 지역에 있다. 10/40 창에는 전 세계 인구의 82%와 전세계 40개 저개발 국가 중 18개 국가가 있다.

3) 접근 제한 지역

미전도종족의 대부분이 전통적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있다. 현재 미전도종족의 80% 이상이 전통적 선교사의 접근이 제한된 국가에 살고 있다. 90년대 초 접근 제한 국가는 119개국으로 약 39억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지만, 2000년에는 150개 국가와 약 48억 정도의 인구가 되리라 내다보고 있다. 전체 선교사와 기독교 사역자 중에서 토착교회가 없는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은 단 10%도 되지 않는다.

4) 육적 영적 기갈

미전도종족의 적지 않은 부분이 극심한 가난과 기아, 억압 등의 상황에 처해 있어서 복음을 들을 만한 귀가 열리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에게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필요가 결핍되어 있다. 첫째는 물질적 필요로서의 충분한 식량과 깨끗한 물, 적절한 건강이며, 둘째는 영적인 필요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다. 이슬람, 힌두, 불교 세력권에 속해 있어서 영적 혼돈이 심하고 복음에 대하여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어느 곳보다도 복음이 긴급하게 요청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미전도종족 선교는 물론 기존의 선교활동을 기초로 하여 진행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미전도종족을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종족 탐사 및 선교를 위한 선교후보생 발굴, 훈련, 관리 등과 아울러 선교지에 대한 정보와 전략 등이 요청되고 있다.

또한 접근제한 지역 선교를 위하여 전문인 선교사를 발굴, 파송하는 일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전문인 선교사들은 선교사 입국이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 미전도종족 집단 혹은 창의적 접근지역(선교제한지역)에서 안정된 거주가 보장되는 직업을 가졌고 선교대상 지역에 입국하여 직업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교회개척 사역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지역사회 개발, 구제, 사회봉사 등을 병행하는 총체적 전인적 선교가 가능하여 최근 세계선교 전략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외에도 현재 미전도종족 지역 선교를 위하여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사역들, 즉 성경번역, 미전도종족 선교, 단기 선교사 파송, 단기 의료선교, 선교의료 병원 설립, 중보기도, 특수지역 연구, 제3세계 지도자 초청 훈련, 지역개발사업 및 지원사업 등등의 선교사업들이 보다 폭넓게 전개되면서 한국교회의 총체적 힘이 모자라지 마지않고 그 날까지 세계선교를 성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토막소식

▶ 오늘로 개교 8주년을 맞는 사랑부에서는 오늘 기념예배를 드린다. 사랑부는 정신지체인들이 모이는 교회학교로, 우리교회가 장애인 선교에 뜻을 품고 에바다부(농아자를 위한 교회학교)와 함께 설립한 부서이다.

한편 에바다부에서는 오는 10월 13일에 설립 9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 중에 있다.

▶ 9월 한 달 동안 각 초등부에서는 하반기 심방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초등3부에서는 '96년도 하반기 심방 지침서'를 교사들에게 배포하였다. 이 지침서는 심방의 성경적 근거, 필요성, 심방시의 대화 요령, 주의사항, 심방 후 행정처리 등을 다루고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심방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 초등3부에서는 오늘 어린이 헌신예배를 드린다. 이 예배에서는 사회와 기도를 어린이들이 담당하게 된다.

▶ 초등4부에서는 오는 10월 13일 파별 찬송가대회를 실시한다.

▶ 초등5부에서는 오는 9월 15일에

성경퀴즈대회를 실시한다. 범위는 사도행전이다.

▶ 중등1부에서는 오는 9월 29일에 요절암송대회를 실시한다.

▶ 중등2부에서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에 있을 학습, 세례, 입교식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준비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학습, 세례, 입교식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이 준비 학습에 모두 참석하기를 바라고 있다. 장소는 아멘홀이고, 시간은 오후 12시 40분~1시 30분이다.

▶ 고등부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베다니홀에서 고3학생들을 위한 학부모기도회를 실시한다.

▶ 소망부에서는 오는 9월 22일 찬송가부르기대회를 실시한다.

▶ 새가정부에서는 오는 9월 11일 수요일예배를 마치고 교사영성훈련을 실시한다. 영적 재충전과 친교의 시간이 될 이 훈련에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 에바다부에서는 오는 9월 15일 오후 3시 교육관 109호에서 개강예배를 드림으로 수화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정은 수요일반(초급 9월 11일~12월 11일 오후 1시~2시 50분)과 주일반(초급, 중급, 고급 9월 15일~12월 15일 오후 3

시~4시 50분)이며 교육장소는 에바다부 교사실이다.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데 신청금은 만원(교재대 포함)이다.

충현동산 관리동 신축

연건평 150여평의 2층 건물로

재단법인 충현동산 이사회는 충현동산 공원과 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충현동산 관리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하여 이용하는 교인들의 불편이 있어 새로운 관리동을 건축하기로 결정하고 이 일을 교회 건축위원회에 의뢰하였다.

건축위원회에서는 설계를 확정하고 건축허가 신청서를 광주군에 제출하였고 허가가 나오는 대로 곧 착공할 예정이다.

충현교회 교인 중에서 이 일에 관심을 갖고 건축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사무국 관리과(☎ 552-8200 교한 403)로 문의하기 바란다.

— 건축내역 —

- 공사명 : 충현동산 관리동 신축공사
- 신축지 :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충현동산

관리비 납부 요망

추석절 성묘시 주의사항도

충현동산에서는 추석절을 전후하여 관리비를 수납하고 있다. 관리비는 1기(基) 당 1년에 3만원으로 동산 관리사무소나 교회 사무국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충현동산에서 추석절 성묘객들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① 묘소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 것 ② 화분, 생화, 조화 등의 헌화는 묘소 잔디 성장 및 주변 미관, 정리에 지장이 크므로 되도록 삼가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수단 김영대 선교사 ▶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교재개발입니다

원로목사님, 수고하시는 교역자님들과 선교위원장님, 선교위원회 집행위원과 기도위원, 그리고 온 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충현교회가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랑과 권고하심 속에서 국내외적인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도드립니다.

1. 카르툼 소식

현재 카르툼에는 미국 선교사들에 대한 배차 압력이 있으나 다른 선교사들은 비교적 아무 일 없이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수단에 60일간 외교제재조치를 취해서 수단 정부적으로는 국제교회회의에 참석을 금지당하고 있어 어려운 상태인 것 같으나 저희들에게는 특별한 변화는 느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비자 1년간 연장

다시 학생비자로 97년 5월까지 비자를 연장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여권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과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3. 신학연장교육(TEE: 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

수단 교회를 돌아보면 중 TEE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평신도를 위한 성경공부 및 간단한 신학공부를 위해 교재를 만들어 5-10명 정도의 그룹을 만들어 3년간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회교권 상황에서 좋은 방법이고 이곳 수단에서는 최초의 평신도 교재들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교재를 주면 집에서 1주일간 공부하고 1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하고 교육하는 것

입니다. 4개 그룹을 시작했습니다. 성경개요, 창세기, 출애굽기, 마가복음, 이슬람개요, 초대 수단 교회사, 구원론 등을 아랍어와 영어로 교재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아직 아랍어가 미숙하여 영어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A 그룹(수단 잔디부족): 11명(남9, 여2)이 제7주째 모이고 있습니다.

B 그룹(수단 모슬렘 개종 두 가정 부부 모임): 소바(카르툼에서 30분 거리의 난민촌)에서 4명이 제4주째 모이고 있습니다.

C 그룹(수단 북부 모슬렘 개종자): 저의 집에서 남자 6명이 제2주째 모였습니다.

D 그룹(아디오피아인): 13명이 카르툼 아바라트 지역에서 제1주째 모였습니다.

4. 신학교

정부에서 안가되게 않았지만 4년만에 1회 졸업생을 내고 안정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페국 선교사들이 대부분 가르치고 한국에서 유학했던 수단인 1명, 그리고 저는 전도학을 지난 학기에 강의했습니다. 모슬렘 국가 내에 하나님의 섭리로써 존재하는 귀한 기관입니다.

5. 교재 개발

(1) 성경 66권을 집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재화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뿌리 내리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기독교 국가가 말씀과 교리에 대한 교육이 없어 너무 빨리 험악해 무너졌습니다. 외국에서 기독교 서적을 들여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자체 개발 및 인쇄시설을 요합니다.

(2) 비디오 테이프 보급입니다. 예수 영화! 이들은 문맹들이 많고 성경 지식이 너무 없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3) 지속적인 지도자 훈련입니다. 가르칠 사람, 훈련된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4개 그룹이 기대가 됩니다.

(4) 교육과 더불어 자활할 수 있는 워크샵 운영으로 생계를 일단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빈곤해서 차비가 없어 공부하러 오지 못합니다. 밑거름을 이야기합니다.

(5) 가능하면 작은 클리닉(진료소, 약품 공급)이 난민촌에 필요합니다. 카르툼 주위는 전쟁으로 피난온 난민들이 더덕더덕 기운 천막집과 흙집에서 삽니다. 물도 당나귀로 날라 사먹어야 하고 전기는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과 먼지, 굶주림을 이겨내야 합니다.

6. 기타 사항

(1) 신학교 다음 학기는 전도학 강의가 없습니다.

(2) 은비, 영화가 학교 생활 1년을 잘 마치고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3) 한인교회는 창세기 - 이사야까지 매주 말씀을 전했다, 전도지(복음)지를 만들었습니다.

(4) 교회선교훈련센터를 위해 장로 교단에 80-100년 부지 사용을 신청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5) 장로교단 목회자 장로 모임에서 '성령'에 대한 특강을 했습니다.

7. 기도 제목

(1) 수단에 계속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특히 북부 아랍 수단인이 예수님을 믿도록

(2) 학생(언어학) 신분인데 더 좋은 명분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3) TEE 그룹 구성원이 말씀으로 중생하고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 계속 그룹이 부흥 확장되도록

(4) 수단인 복음화를 위해 교육 자료와 전도지를 영어와 아랍어로 계속 만들 수 있도록

(5) 말씀을 영어와 아랍어로 통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선교에 전력하도록

(6)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회훈련센터를 설립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1996년 6월

김영대 선교사 드림

▼ 원주민 교회인 요셉교회 앞에서 예배를 마치고.

